

청렴은 당연한 것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다던 스물여섯 살 9급 공무원 아가씨는 어느 틈에,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아이를 셋이나 낳은 마흔 살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셋째가 생기는 바람에 내리 5년을 쉬게 되었고, 그사이 '오늘 저녁은 뭐 먹지?'가 하루의 가장 큰 고민인 평범한 주부가 되었다. 아이들을 놀이터에 풀어놓고 수다를 떨던 동네 아줌마들은 내가 공무원이라 다시 사회생활을 할 것임을 알게 되면 세상 부러워했고, 나 역시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든든해지곤 했다.

다행히 복지가 좋은 공무원인지라 돌아갈 자리가 있었고, 남편이 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봐준다고 지지해 준 덕에 복직 신청을 했지만, 몇 년을 아이만 키우면서 동화책만 읽던 내가 그동안 수없이 개정된 세법과 시스템에 적응할 생각을 하니 밤잠을 설칠 정도로 두려워졌다. 심지어 좀이 쑤셔서 어서 복직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내가 복직 날이 손꼽을 만큼 가까워지니 두려움에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을 물릴 수는 없었고, 복직하는 그날이 왔다. 모든 것이 변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변했다. 기존에 알던 지식은 잊어버린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기억나는 지식은 개정되어 쓸모가 없었다. 전문 용어는 고사하고, 보고서에 쓸 만한 적절한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았다. '맘마', '까까' 같은 유아적인 단어들만 쓰던 내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서를 쓰려니 막막해졌다.

수년 만에 복직한 회사도 내가 변한 만큼 달라져 있었다.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아랫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저녁 회식 대신 점심 회식 문화가 생겼고, 익명게시판과 공무원노조가 생겼다. 근무평정에 대한 순위와 점수가 공개되었고, 의문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심지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 아래 직원들 사이에는 할 말은 하는 문화가 생겼지만, 윗분들은 여전히 정당한 항의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연공서열을 따지셨다. 신·구가 묘하게 엉켜 있는 조직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고, 뒤로 후퇴한 내가 앞으로 뛰어간 조직에 예전처럼 적응할 수 있을지, 일할 수 있을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걱정 투성이인 내 앞에 툭 떨어진 주제는 '청렴'이었다.

내가 다니는 시청은 청렴 동아리, 청렴 캠페인, 청렴 챌린지, 청렴 워크숍, 청렴 표어 등등 떨어진 청렴도 순위를 높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허락된 청렴의 향연장이었다. 청렴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실적으로 부서 평가 점수를 매긴다고 했다. 모든 부서에서는 앞다투어 청렴 동아리를 만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만들어서 보고했다. 하루는 청렴 강의를 들었다고 했고, 하루는 청렴 챌린지를 해 인증샷을 찍고, 하루는 표어를 만들고, 하루는 음주운전 교육을 했다. 그리고 그런 실적들은 문서가 되어 우리의 치적이 되었다.

새울 게시판(공무원들의 사내 게시판)에는 청렴 동아리 실적을 위해, 부서의 가점을 위해 너도나도 올린 청렴 관련 게시물들이 읽어볼 새도 없이 쌓였다. 물론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 가운데에 내가 있었다. 오랜만의 복직, 빨리 적응하고 싶은 열망에 누구보다 청렴한 척했지만, 사실 나는 모순덩어리였다.

나의 업무는 체납자들을 독려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일이었다.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공매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왔다. 그들은 언제나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세금을 내지 못한다 했다. 수억의 부동산을 팔아 수천만 원의 체납액이 있지만, 현재는 돈이 없다고 누가 교육한 것처럼 한결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한결같이 대하지 않았다. 이성적이고 점잖은 체납자에게 더 가혹했고, 소리 지르고 욕박지르는 체납자는 분납 기한을 여유 있게, 분납금을 적게, 체납 처분을 느슨하게 해주었다. 공정하지 못했다.

또 나는 상사의 업무 외적인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고, 심지어 후배들에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함께하자고 했다. 근무시간에 업무 외적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날이 있었고, 작은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누군가는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것이 바른 행동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풀 새도 없이 나의 하루는 지나갔고, 틈틈이 청렴 관련 설정 사진을 찍었고, 나의 허울뿐인 청렴 실적은 A4 종이 위에 새겨졌다.

종이 위의 청렴, 모니터 안의 청렴. 그것이 진짜인가?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똑같은 책을 열 번 스무 번 읽어 주어도 언제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반응해 주었다. 그날도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수없이 읽어 준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처음으로 내게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

첫째 아기 돼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짚을 얻어서 집을 짓고, 둘째 아기 돼지는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무를 얻어서 집을 지었다. 그리고 역시나 셋째 아기 돼지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을 얻어서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다. 모두 알다시피 셋째 아기 돼지의 집만 빼고 모두 늑대의 입바람에 날아갔고, 셋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만이 온전했다.

늘 평범했던 동화책이 내 머리를 맴돌던 청렴과 맞닿으면서 온통 의구심으로 가득 채워졌다.

왜 아기 돼지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짚과 나무와 벽돌을 얻었을까. 정당한 대가를 지

불하지 않고. 왜 셋째 아기 돼지는 벽돌집이 가장 튼튼한 집인 것을 알면서도 형들과 공유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과연 청렴한 행동이었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무의식중에 아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 세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의구심은 동화책마다 들었다. 『백설공주』에서 새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사냥꾼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사냥꾼은 차마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하고 도망가게 했고, 사슴의 심장을 백설공주의 심장이라고 속여 왕비에게 바쳤다. 도망친 백설공주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잠을 잤다.

왜 왕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사냥꾼에게 시켰고, 왜 사냥꾼은 왕비의 갑질을 당당히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왕비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보고해도 되는 걸까? 왜 백설공주는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했을까.

상사의 갑질이 당연시되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극히 당연하게 그리고 있는 동화책들을 아이들에게 읽어 주면서 우리의 문화가 청렴해지길 바라는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싶었다. 어릴 때부터 물들여진 부조리를 뜯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알 것이다. 우리의 청렴의 시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허공에라도 알리고 싶었다. 나의 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그러던 와중에 청렴 수기 공모가 있다고 해서 정말 부족한 글솜씨라 부끄럽지만 몇 줄 끄적거리다 그간의 수상작을 몇 편 읽어 보았다. 모두 가슴 묵직해지는 감동이 있었지만, 대개의 스토리가 비슷했다. 과거 회사 포인트를 가져다 쓰는 등의 부패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것은 부패였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에 녹아 있었다. 아주 만연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멍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심지가 굳은 어른께서 그것이 잘못임을 알려 주셨고, 그로 인해 글쓴이의 청렴을 일깨워 주셨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여기서 나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만연한 부패 문화와 과거형의 청렴 실천.

부패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듯이 청렴이 우리의 생활이 되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동화에, 동요에, 학교에, 놀이에 무의식적으로 녹아 있어야 한다. 아침에는 잠에서 깨고 저녁에는 잠드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입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청렴은 이제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렴은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고, 습관이고,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스며들어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제 청렴은 진화했다. 뇌물 수수 금지, 청탁 금지, 공적 자원의 사적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제도의 청렴은 과거의 청렴이 되었다. 지금은 갑질 안 하기, 정당하게 거절하기, 틀린 것을 인정하는 용기, 소신 있는 업무 처리, 나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사고의 변화가 곧 청렴이 되었다.

습관처럼 고치기 힘든 것이 관념이다. 굳어진 첫인상을 뒤집기가 얼마나 힘든가. 반대로 청렴이 굳어진다면 얼마나 굳건하겠나. 청렴이 관습이 되고 관행이 되면, 그것은 또 관념이 되고 문화가 될 것이다. 나부터 어떤 체납자에게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리라고 다짐해 본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 관행이 되어 변함없는 진리가 되도록.

나는 동화책을 읽어 주면서 틈틈이 세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다.

“승빈아, 벽돌집이 튼튼한 줄 알았으면 동생들에게도 같이 튼튼한 집을 짓자고 알려주는 게 어떨까?”

“유빈아, 먹고 싶으면 돈 내고 먹는 거야.”

“예빈아, 하기 싫은 건 ‘나 그거 하기 싫어요’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새어머니, 새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공주, 불의를 보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묵인한 팔쥐, 신데렐라를 찾는 개인 용무에 직원을 동원한 왕자, 신원을 속이고 무도회에 참석한 신데렐라.

우리의 책장에 꽂혀 있는 동화 속 온갖 부조리들이 혹여나 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까 동화책을 읽어 준 후 꼭 되물어 본다.

“그것은 과연 바른 행동이었을까?”